

## Contact

40 Todang-ro 12beon-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Website / Tel

<http://www.lindenbaumschool.com>  
<http://www.thelindenbaum.org>  
031)973-3390

# THE LINDENBAUM JOURNAL

## OUR STORY

'더 린덴바움 저널 (The Lindenbaum Journal)'은, '린덴바움 아카데미'와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에 얽힌 생생한 현장 스토리와 경험담을 '린덴바움 공식 웹사이트 ([www.lindenbaumschool.com](http://www.lindenbaumschool.com))를 통하여 들려드리는, 린덴바움 공식 웹매거진'입니다.

2018년 7월부터, '린덴바움 저널'을 통해 매주 '린덴바움 아카데미' 및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의 참가 학생 및 학부모들의 소중한 후기와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린덴바움 저널'의 '정기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공식 이메일 ([lindenbaumschool@gmail.com](mailto:lindenbaumschool@gmail.com))을 통해 신청 의사를 밝혀 주시면, 신청자 분의 메일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저널 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 Contact

40 Todang-ro 12beon-gil, Deogya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 Website / Tel

<http://www.lindenbaumschool.com>  
<http://www.thelindenbaum.org>  
031)973-3390

# EPISODE 2

## *Toshiyuki Shimada*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부교수이신  
*'Toshiyuki Shimada'*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  
는 Shimada교수님과  
린덴바움의 이야기를 만  
나보세요.

# EPISODE 2

“

너무나도 더운 여름입니다.  
한국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

A. 정말 덥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네요!

“

Toshiyuki Shimada 교수님과  
린덴바움의 인연을 말씀해주세요

---

A. 작년 10월에 린덴바움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습니다. 어려운 테크닉으로 알려진 쇼스타코비치의 곡을 연주할 예정이어서 곡의 완성도에 대해 약간 걱정이 있었지만, 린덴바움 아카데미 학생들이 매우 잘 준비되어 있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한 평소 매우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했는데 공연이 끝난 뒤 원형준 감독이 찾아와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주었지요. 그 계기로 이번 해 린덴바움을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오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

린덴바움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

A. 린덴바움 페스티벌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우 똑똑하고 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힘든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잘 되어있어서 놀라웠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으면 종종 리허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이 가진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음악은 널리 퍼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음악이 연주되면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음악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로 들어와서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정말 멋지죠.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은 이러한 음악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편견이나 압박 없이 함께 음악을 연주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 Q. DMZ 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소감을 말씀 해 주실 수 있나요?

A. 부담을 느끼면서도 매우 고대되고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화합을 위해 DMZ 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미디어에 알려진 만큼 린덴바움 뮤직 페스티벌은 한반도 화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이러한 에너지는 완전한 화합이 이루어질 때 까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의 어려운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본계 미국인인 제가 린덴바움 뮤직페스티벌에 지휘자로 초청 된 것이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과 현 정부에 관해서는 무척 유감입니다. 주위 많은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하냐고 묻곤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음악으로 힘쓰는 것이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쟁 때 저의 부친께서는 미국을 위하여 도쿄에서 일 하셨고, 미군에게 군용물품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 위해 미국에서 파견되셨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평화와 화합에 기여하는 것에 더욱 책임감을 느낍니다.

“ Q.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작곡된 Fence-a-Dance 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

A. 일단 복잡합니다. 매우 다양한 소리를 내면서 시끄럽기도 하고 마찰이 많은 구성을 가진 음악이지만 이내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돈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렬되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사람이나 국가에서 보여지는 갈등을 나타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 Q. 린덴바움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

A. 원형준 음악감독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휴머니즘의 전달 도구로 음악을 사용하는 원형준 대표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그는 파워풀한 리더십을 통해 린덴바움을 원형준 그 자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간에 교류를 하며 친한친구가 되었고 많은 것을 나누었죠. 나는 평화와 화합을 위해 일하는 원형준 대표를 항상 지지하며 그와 앞으로도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린덴바움에 초대받게 된다면 큰 영광일 것입니다.

“ Q.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악이 있나요?

---

A. 모짜르트의 모든 음악들.

모짜르트의 음악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고 무척 순수하죠. 천재를 넘어선 사람들은 천상 그 이상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짜르트는 그 중 한 사람이죠. 베토벤이 인간과 현실의 투쟁을 상징한다면 모짜르트는 그 이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모짜르트를 들을 때면 치유와 순수를 느낍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이 없는 젊은 뮤지션들 에게는 오직 손가락을 잘 움직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음악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경험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